

“낙선했지만 고향에 남아 지역 발전 힘쓰겠다”

국민의힘 광주 국회의원 후보들 향후 정치 행보 주목

지역과 중앙 오작교 역할 자처... 후보 시절 공약 등 추진 약속도 “광주 진입 어려움 뼈저리게 절감...지역 민원 해결 발벗고 나설 것”

4·10 총선에서 낙선한 광주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 이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이들의 정치 행보가 주목된다.

그동안 선거에서 낙선하면 지역을 떠났던 출향 인사들과 달리 이들은 고향에 남아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처해 향후 보수정당의 ‘불모지’에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들은 29일 집권 여당 후보를 경험한 강점을 내세워 지역과 중앙정부 간 오작교 역할을 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작게는

7.5배에서 많게는 16배 차이의 득표율로 참패한 충격을 뒤로 하고, 지역구 당협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출발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는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현안 해결에 나서는 등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기로 해 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어떤 목소리를 내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 대부분이 과거 보수정당에서 활동해왔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향후 정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위원장을 지내고 이번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출마했던 김정현 전 후보는 “첫 선거였다. 선거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많은 이

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점, 고쳐야 할 점 등에 대한 충고가 많았다”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위원장 시절, 중앙정부와 여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많은 보람을 느꼈던 만큼 시장위원장에 한번 더 도전해 광주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박은식 전 동남을 후보는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 광주를 찾았을 때 주민들을 꾸준히 만나려고 한다”면서 “동남을 당협위원장 직책을 승계한 만큼 인재영입위원회와 당 지도부 등을 거치면서 알고 지낸 현역 의원들과 중앙당에 후보 당시 공약 등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전 서구를 후보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광주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뼈저리게 절감한 계기였다”면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국

단적인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차근차근 주민들을 만나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강현구 전 동남갑 후보와 하현식 전 서구갑 후보는 ‘광주 소외’를 걱정하면서 지역 발전부터 소소한 지역민원 해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가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다. 당락(當落)을 떠나 시민들을 위해 당선자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명 전 북구갑 후보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 경쟁 없이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광주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며 “광주 변화와 복구 발전을 위해 출마한 만큼 낙선자의 위치지만 집권 여당 후보 출신으로서 구정 예산 지원 활동 등을 계속해 복구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태욱 전 광산을 후보는 “30여년 동안 소신껏 한걸음 걸어왔지만 국민의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걸 느낀 선거였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인의 사명이다.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변함없이 (정치를) 하

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수 불모지’로 여겨지는 광주에서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지역구에서의 꾸준한 활동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정치 지형 변화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으로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불모지’인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내면서 당 안팎에서 기대가 있었지만, ‘정권심판’ 바람에 좋은 후보들이 맥을 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 한다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민주당 ‘일당 독점’을 꺾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광주시의회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비례)은 “불모지 광주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준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후보였던 이들 모두) 광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광주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광주 발전을 위해 여러 이야기를 나눈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많은 격려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노동자들이 대우 받는 세상 되길”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대회가 29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 교동문화연수원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색색의 종이비행기를 날려보내며 노동절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실증도시 광주’로 옮기는 AI 기업들

광주시, 플랫폼·헬스케어·보안 등 인공지능기업 7곳과 협약

인공지능(AI) 기업의 광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주에만 들어선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산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원포유, 박격포, 태영에스엔티, 원퍼스트, 램팜, 와이와이소프트, 시스포커 등 7개 AI 유망 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 플랫폼, 헬스케어, 보안 등 분야 기업들로 AI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183~189번째 협약 상대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원포유 전동호 대표이사, 박격포 정장용 대표이사, 태영에스엔티 김기영 대표이사, 원퍼스트 하대수 대표이사, 램팜 이용우 기술이사, 와이와이소프트 양홍현 대표이사, 시스포커 공석만 대표이사 등이 참

석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추진 및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기업 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베트남과 수산업 발전 협력 강화

국립 제1양식연구소와 기술교류 세미나로 연구 성과 공유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과학원에서 베트남 국립 제1양식연구소(RIA1)와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교류 세미나를 열어 상호 수산업 발전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 제1양식연구소는 농업농촌개발부(MARD) 산하 국가연구기관으로 베트남 수산 분야 연구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 양식 수산물 수출국이다. 양식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지

리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3260km의 해안선과 100만km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베트남의 양식업과 원양어업의 자산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액 95억 달러(한화 약 13조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기술교류 내용은 ▲미세조류 배양 및 양식산업에 활용 ▲수산생물 질병 관리 시스템 ▲새우 전염병 통합 진단 시스템 개발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 전복 생산성 연구 ▲북베트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체동물 개발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의 어류 및 연체동물 양식과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베트남과 업무협약에 이어 세미나까지 개최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공동 연구과제 발굴로 전남 미래 수산업 발전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광주시, 5월 한 달간 진행

광주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5월 한 달간 ‘고민은 내가 들어 줄게-영화는 누가 볼래?’를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고민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내 마음 점검하기(우울 자가검진), 고

민작성, 마음 응원하기(고민포기), 영상시청(스트레스 해소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포스터 내 정보QR(QR코드·사진)을 통해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 영화관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

광주시는 시민 정신건강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자치구별로 1개소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미로43(신안동) 3층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